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正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

이 현 미·임 숙 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Yin-Yang Clothing Behavior of Mothers and Daughters

Hyun My Lee · Sook Ja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87. 8. 31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in sex-role identity and yin-yang clothing behavio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yin-yang clothing behavior.

Sex-role identity was measured by Bem Sex-Role Inventory(1974)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this study. For the measurement of yin-yang clothing behavior, researcher developed a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422 women, both college women and her mother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χ^2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of covari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yin-yang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family type, mother's employment.
-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moth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mother's sex-role identity. But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daughter's sex-role identity and daught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 Mother's sex-role identity had influence on daughter's sex-role identity. And moth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had influence on daught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too.
- Moth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and daughter's sex-role identity directly affected daught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but mother's sex-role identity indirectly affected daughter's yin-yang clothing behavior.

I. 緒 論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衣服에 싸여 生을 출발하게 되며, 의복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을만큼 의복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衣服에는 커뮤니케이션 기능(communication function)이 있어¹²⁾, 개인의 所屬, 身分, 役割등의 社會的 인面과 함께 價值觀, 自我概念, 性格등과 같은 心理的인面도 반영하여 社會的相互作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복은 個人的 性役割을 반영한다.

성역 할은 性別에 따라서 文化內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行動樣式, 態度, 人性特性을 포함하는一切의 行動基準이다. 개인의 사회활동중 성역 할은 어떤 사회적 활동보다도 뚜렷하고 지속적인 것이다.

어떤 사회나 남녀의 성역 할에 대한 固定觀念이 있고 의복은 이러한 性의 正體感 형성에 도움을 준다. 성역 할은 그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마다 의복에 부여하는 價值나 認知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복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의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인 동시에 性役割 正體感이 확립되는 시기인 青年後期의 女大生을 대상으로 성역 할 정체감과 衣服行動과의 關係를糾明해보고자 한다. 또한 女學生의 성역 할은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아³⁾, 말은 자신의 役割標本을 어머니象에서 찾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관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복행동에서 모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全無한 실정이므로 이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의 考察

1. 性役割의 概念 및 變化

Block⁴⁾은 성역 할을 한 개인이 그가 속한 文化圈내에서 男子 또는 女子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여러 特質이라고 하였다. Broverman⁵⁾은 성역 할이란 男・女를 구분시키는 사람을 사이의 合意된 觀念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합의된 意義이란 남녀의 生理的・解剖學的 差異에 근거를 두고 이에 수반되는 기질, 성격, 능력의 차이를 상정해서 권리, 특권, 노동, 업무등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역 할이란 性別에 따라 문화내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行動樣式, 態度, 人性特性을 포함하는一切의 行動基準을 말한다. 성역 할은 그 문화가 남・녀에게 기대하는 태도, 성격, 정서적 반응, 행동 등이 한個人을 通過하여 發達되는 過程에서 정립되며, 각 문화마다 다르고 한 문화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

身體的・生理的 要因을 중심으로 하는 성역 할의 구분은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役割의 差異가 社會文化的 構造를 통하여 영속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우리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녀의 성역 할이 生理的 要因보다는 社會・文化的 要因에 따라 형성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⁶⁾.

심리학자들은 남녀 모두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인

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最大의 潛在力を 발휘하여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役割의 急進의 再構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androgy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의 統整을 주장하는 이론은 Jung, Parsons, Baken 등에게서 나타나 Bem 등에게로 이어진다. Bem⁷⁾의 양성성 개념은 양극성(bipolarity)과 일원성(unidimensionality)을 전제로 한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남성성, 여성성의 분리된 純粹적, 2차원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Androgyny는 회랑이의 남성을 일컫는 andro와 여성성을 일컫는 gyn의 復合用語로써, 하나의 有機體內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생물학에서 雌雄同體를 일컬을 때 사용되지만, 최근 심리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특질을 다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심리적 양성성은 현재 성역 할 연구에서 촛점이 되고 있으며, 性定型化된 사람들과 兩性性的 사람들의 行動差異와 人性的인 面의 差異를 통해 사회의 유용성을 검증코자 시도되고 있으며, 性(gender) 자체를 사회적 영역으로 취급하여 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반응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 陰陽理論과 衣服

의복행동에서 陰陽의 概念은 Northrup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Northrup은 한 개인의 人的 特性뿐 아니라 의복행동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음양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음양의 개념은 고대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宇宙와 人間을 구성하는 2개의 相反되는 原理를 나타낸다.

陰陽의 概念을 적용한 연구로는 McJimsey(1963)⁸⁾, Wunderlich(1961)⁹⁾, Ditty(1962)¹⁰⁾, Compton(1962)¹⁰⁾, Douty(1964)¹¹⁾, Kahng(1971)¹¹⁾, 정삼호(1984)¹²⁾의 연구가 있다.

衣服에 陰陽理論을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男向性・女向性 性格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남향성・여향성 성격특질의 분류가 社會文化的인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곧 性役割과 연관을 갖는다.

性役割과 陰陽衣服行動에 대한 연구로는 정 상호와 최 경희의 연구가 있다. 진(jean)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정 삼호(1977)¹³⁾는 女性의 役割에 대한 態度와 친에 대한 衣服行動, 陰陽衣服行動(디자인 기호)을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開放的인態度를 지닌 사람의 진을 더實用的이라 하였고着用頻度도 높았다. 또 한 진의 소유량과 착용도는 디자인 기호와 관계가 있어 진을 많이 소유하거나 착용한 사람이男性的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경희(1983)¹⁴²는 여고생의衣服行動과性役割態度와의關係에 대한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와 음양디자인 선호와는 관계가 있어開放的인性役割態度를 보인女高生들이陽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음양디자인 선호는 유니섹스의복행동과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다.

III. 研究問題의 敘述

1. 假說 設定

연구문제 I 陰陽衣服行動은家庭環境變因의影響을 받는가?

(가설 I-1)家庭環境變因에 따라서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I-2)家庭環境變因에 따라서 여대생의 陰陽衣服行動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II 陰陽衣服行動은性役割定體感의影響을 받는가?

(가설 II-1)어머니의性役割定體感에 따라서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여대생의性役割定體感에 따라서 여대생의 陰陽衣服行動은 差異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III 딸의性役割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은어머니의影響을 받는가?

(가설 III-1)어머니의性役割定體感은 딸의性役割定體感에影響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2)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딸의 陰陽衣服行動에影響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IV 어머니와 딸간의性役割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은 어떤關係가 있는가?

(가설 IV)딸의 陰陽衣服行動은 어머니의性役割定體感,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 자신의性役割定體感에 따라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2. 用語의 定義

1)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個人이 스스로가 얼마만큼의男性的인特性과女性的인特性을保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도로性役割定體感은男性的, 女性的, 兩性, 未分化유형으로

분류된다.

2. 음양의복행동(yin-yang clothing behavior):

陰陽理論을衣服行動에 적용한 것으로, 隱은女性의衣服特性을, 陽은男性의衣服特性을 나타낸다.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對象

본 연구는梨花女子大學校 1,2學年生과 그 어머니를對象으로 하였으며, 標本抽出方法은學年과 專攻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이었다.

資料蒐集期間은 1986年 10月 6日부터 13日까지였고, 각 과의 조교와 과대표를 통하여 총 720部(학생용 360部, 어머니용 360部)가 配付되었다. 回收된 504部 가운데 不實記載된 것과 어머니의 응답여부가 不確實한 資料를 제외하고, 422部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測定道具

1) 家庭環境的 特性

家族形態, 어머니의職業有無, 社會階層의 3變因을조사하였다.

2) 性役割 定體感

성역할 정체감은 Bem Sex-Role Inventory를 사용하여測定하였다. BSRI는 7점 척도의 Likert-type의 검사로서,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해 男性性, 女性性, 兩性, 未分化의 네 유형이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2次의豫備調查를 거쳤다. 예비조사에서는 BSRI의 男性性과 女性性 문항 40개를 임의로나열하여社會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男女의特性을 구분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BSRI의 문항분류와 예비조사의 결과가一致하였으나, 몇 문항에서는 差異가 있었다. 즉, 개인적이다(individualistic) 문항은 BSRI에서는 남성성 문항이나 예비조사 결과 여성성 문항으로 나타났다. 또 충성적이다(royal)와 이해적이다(understanding) 문항은 BSRI에서 여성성 문항이나 예비조사 결과 남성성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BSRI의 문항분류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 문항과一致度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총 3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에 의해 신뢰도를 测定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3) 陰陽衣服行動

음양의복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文獻과先行研究에

〈表 1〉 BSRI의 신뢰도

	남성성문항	여성성문항
어머니	.88	.81
여대생	.88	.85

〈表 2〉 음양의 복행동 문항의 신뢰도

	음양의 복행동 문항
어 머 니	.71
여 대 생	.82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作成하였고, 2次의 豊備調査를 거쳐 문항을 修訂・補完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测定道具는 4개의 스타일화와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流行을 統制하고 陰陽의 衣服特性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스타일화는 着裝狀態를 촬영한 사진을 기초로 하여 製作하였다.

문항 작성은 McJimsey(1963)와 정 상호(1977), 최 경희(1983)등의 연구를 參考하여 18개의 문항을 作成하였다. 이 중 2次의 豊備調査結果 Cronbach's α 로 신뢰도가 입증된 15개의 문항만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5점 척도 Likert-type의 겹사이며, 겹수가 낮을수록 衣服行動에서 陽의 (男性的인) 衣服特性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는 表 2와 같다.

3. 資料分析

자료의 분석은 頻度, 百分率, 平均, 標準偏差의 產出 및 Cronbach's α , t-test, 一元分散分析, Duncan's Multiple Range test, x^2 -test, Pearson의 積率相關係

〈表 3〉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 : 일원분산분석 (N=211)

가정환경변인	집 단	빈 도	평 균	F 값
가족형태	확대가족 핵 가족	51 160	46.71 47.35	.30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무	41 170	45.27 47.73	3.67*
사회계층	상 중 하	50 97 64	47.18 47.78 46.31	.78

*p<.05

〈表 4〉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 : 일원분산분석 (N=211)

가정환경변인	집 단	빈 도	평 균	F 값
가족형태	확대가족 핵 가족	51 160	43.89 41.04	4.11*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무	41 170	41.95 43.51	1.03
사회계층	상 중 하	50 97 64	43.62 43.19 42.91	.09

*p<.05

數, 共變量分析, 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V. 研究結果 및 解析

1. 家庭環境變因과 陰陽衣服行動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一元分散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는 表 3, 表 4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는 가정환경변인 중 어머니 자신의 職業有無에 의해서만 음양의 복행동에 유의한 차이 ($F=3.67$, $p<.05$)를 보였다. 여대생의 경우는 家族形態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 ($F=4.11$, $p<.05$)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가설 I은 부분적으로 궁정되었다.

어머니는 職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陽의 衣服特性이 높았다.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역 할에 대한 응통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직업적 地位에서 期待될 수 있고 직업적 活動에 適應할 수 있는 의복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대생은 핵가족의 자녀일 경우에 확대가족의 자녀보다 陽의 衣服特性이 높았다. 이는 확대가족의 경우 女性의 性役割과 衣服에 대한 전통적 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핵가족의 경우 성역 할과 의복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家庭環境變因 중 社會階層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여대생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差異가 없었다.

2.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

성역 할 정체감에 따른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一元分散分析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그 결과는 表 5, 表 6과 같다.

어머니 집단에서는 성역 할 정체감에 따라서 음양의

〈表 5〉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에 따른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 : 일원분산분석 (N=211)

	빈도	평균	F 값
남성성	49	45.92	
양성성	55	47.29	
여성성	46	48.54	1.02
미분화	61	47.11	

〈表 6〉 여대생의 성역 할 정체감에 따른 여대생의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 : 일원분산분석 (N=211)

	빈도	평균	F 값	Grouping
남성성	51	39.04		A
양성성	57	44.39		B C
여성성	51	46.37	6.88***	C
미분화	52	42.88		B

***p<.001

복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대생 집단에서는 성역 할 정체감에 따라서 음양의 복행동에 유의한 차이 ($F=6.88$, $p<.001$)가 있었다.

성역 할 정체감에서 男性性 유형인 女大生들은 의복 행동에서도 陽의 衣服特性이 높게 나타났고, 女性性 유형인 女大生들은 陰의 衣服特性이 높게 나타났다. 兩性性 유형과 未分化 유형의 女大生들은 陰陽衣服行動에서 男性性 유형과 女性性 유형의 中間的인 特性를 나타내었다. 추후검증을 통하여서도 성역 할 정체감의 유형별로 음양의 복행동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再確認할 수 있었다. 특히 兩性性 유형의 女大生들은 未分化 유형의 女大生들과 또 女性性 유형의 女大生들과 비슷한 陰陽衣服行動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분석으로써 가설 II-1은 부정되었고 가설 II-2는 긍정되었다. 어머니들은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대부분이 여성적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한 반면 여대생들은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인 의복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對象과 測定道具의 差異는 있지만 정 상호(1977)의 연구결과와 최 경희(1983)의 연구결과를 支持한다.

3.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에서 어머니와 딸간의 關係

성역 할 정체감과 음양의 복행동에서 어머니와 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x^2 -test 와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產出하였다. 그 결과는 表 7, 表 8과 같다.

〈表 7〉 성역 할 정체감 변인간의 관계

(N=211)

	여대생의 성역 할 정체감				Row total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	17	13	10	9	49
성	34.7	26.5	20.4	18.4	23.2
여	33.3	22.8	19.6	17.3	
녀	12	26	10	7	55
성	21.8	47.3	18.2	12.7	26.1
성	23.5	45.2	19.2	13.7	
체	10	7	13	16	46
성	21.7	15.2	28.3	34.8	21.8
성	19.6	12.3	25.0	31.4	
감	12	11	20	18	61
미	19.7	18.0	32.8	29.5	28.9
분	23.5	19.3	38.5	35.3	
화					
Column	51	57	52	51	211
total	24.2	27.0	24.6	24.2	100.0
χ^2				25.27**	
df				9	

**p<.01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은 딸의 성역 할 정체감과 유의한 관계 ($\chi^2=25.27$, $p<.01$)가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III-1은 긍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性役割 態度차체가 딸의 성역 할 태도를決定하는 重要要因임을 밝힌 Smith 와 Self(1980)의 연구와 이 경우, 정 종희(1984)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은 딸의 음양의 복행동과 유의한 관계 ($r=.169$, $p<.01$)가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III-2는 긍정되었다.

즉,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큰 영향을 주었다. 衣服行動에서 母女간의 關係나 父母 간의 關係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表 8〉 음양의 복행동 변인간의 상관관계

(N=211)

	여대생의 음양의 복행동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169**

**p<.01

子간의 關係, 兄弟간의 關係를 고려한 연구가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4.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

1)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 딸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에 따른 딸의 陰陽衣服行動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여대생의 성역 할 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여대생의 음양의 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analysis of covariance) 하였다. 그 결과는 表 9와 같다.

딸의 陰陽衣服行動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F = 6.62$, $p < .01$)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F = 7.11$,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의相互作用에 의해서도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가설 IV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

假說들을 검증한結果, 딸의 陰陽衣服行動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딸의 性役割 定體感은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陰陽衣服行動은 家庭環境變因中 家族形態와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라서 影響을 받았다.

〈表 9〉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과 음양의 복행동, 여대생의 성역 할 정체감에 따른 여대생(딸)의 음양의 복행동의 차이 : 공변량분석
(N=422)

	df	자승합 (SS)	평균자승치 (MS)	F 값
주효과	B	466.59	466.59	6.62**
A	3	226.66	75.55	1.07
C	3	1502.93	500.98	7.11***
상호작용효과				
A × C	9	479.16	53.24	.76
기타	194	13673.39	70.48	
계	210	16330.24	77.76	

**p<.01

***p<.001

A :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

B :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C : 여대생의 성역 할 정체감

이와 같은 結果를 토대로, 딸의 陰陽衣服行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 딸의 性役割 定體感 變因들의 獨立的인 影響과 相對的인 影響力を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Bem Sex-Role Inventory로 측정된 성역 할 정체감은 Nominal Variable이므로 회귀분석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BSRI로 측정된 원래의 자료를 수정하여 Interval Variable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BSRI를 사용한 결과와 원래의 자료를 사용한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수정된 자료의 신뢰도, 즉 Cronbach's α 는 .79 (어머니 집단)과 .81 (여대생 집단)이었다. 중회귀분석에서는 수정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가) 일반 모형 (Model I)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과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딸의 성역 할 정체감과 딸의 음양의 복행동간의 全般的인 關係를 규명하였다.

Model I에 사용된 네 번인들의 平均, 標準偏差, 번인들간의 相關關係는 表 10과 같다.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x_2), 딸의 성역 할 정체감(x_3) 딸의 음양의 복행동(y)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重回歸分析을 하였으며,

$$x_2 = b_0 + b_1 x_1 + e$$

$$x_3 = b_0' + b_1' x_1 + b_2' x_2 + e'$$

$$y = b_0'' + b_1'' x_1 + b_2'' x_2 + b_3'' x_3 + e''$$

x_1 :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

x_2 :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x_3 : 딸의 성역 할 정체감

y : 딸의 음양의 복행동

그 결과는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딸의 性役割 定體感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이었으며,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

〈表 10〉 Model I의 변인들의 상관관계

(N=422)

변인	A	B	C	D
A 어머니의 성역 할 정체감		.107	.117*	-.023
B 어머니의 음양의 복행동		.056	.169**	
C 딸의 성역 할 정체감				.331***
D 딸의 음양의 복행동				

평균 140.84 47.19 142.57 43.20

표준편차 16.45 7.33 18.96 8.82

*p<.05 **p<.01 ***p<.001

〈表 11〉 Model I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N=422)

독립변인	B	C	D
A 어머니의 성역 할정체감	.107	.112*	-.079
B 어머니의 음양의복행동		.044	.159**
C 딸의 성역 할정체감			.331***
회귀상수	40.50	118.94	18.16
R ²	.011	.016	.139

*p<.10 **p<.05 ***p<.001

모든 수치는 회귀분석에 의한 beta 값이다.

動作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이었다. 決定係數 R²는 .139로, 딸의 陰陽衣服行動은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에 의해 14%가 설명되고 있다.

表 11에서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만을 택하여 2단계重回歸分析(path analysis)을 한 후 인과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이었다. 특히 자신의 성역 할정체감($\beta=.329$)은 어머니의 음양의복행동($\beta=.161$)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直接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딸의 性役割 定體感을 媒介로 하여 ($.117 \times .329 = .038$)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間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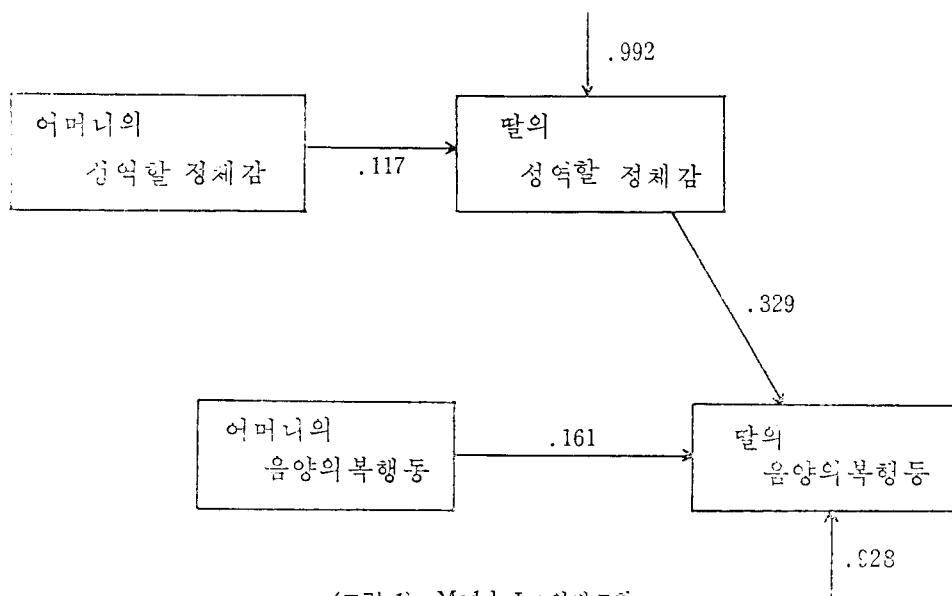
가설 Ⅱ와 Ⅲ을 검증한 결과와一致한다.

(나) 가정환경변인 중 가족형태를 통제한 모형(Model II, Model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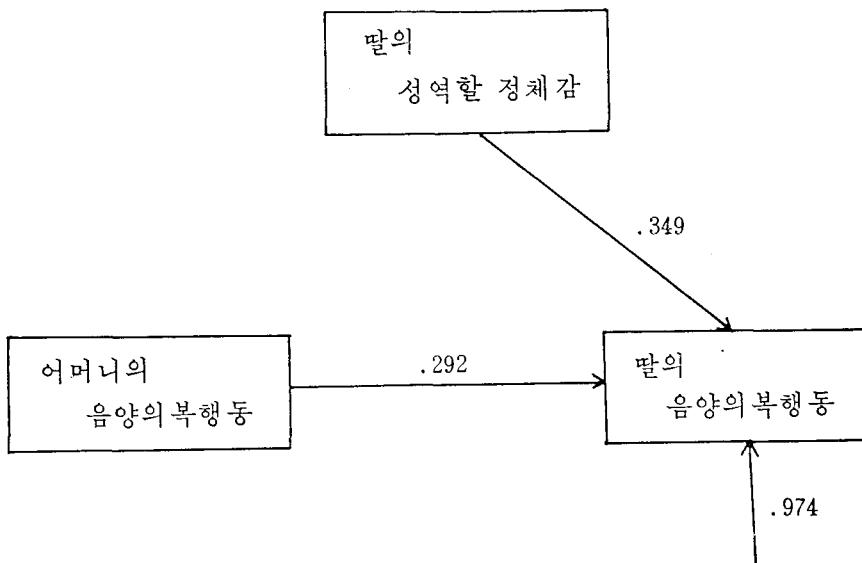
家庭環境變因 中 家族形態에 따라서 女大生의 陰陽衣服行動에 差異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家族形態를 狀況變因으로 두고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를 규명하였다. Model II는 확대가족, Model III는 핵가족의 경우이다.

그림 2는 확대가족의 경우를 2단계 重回歸分析한 결과이다. 확대가족에서,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과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이었다. 이 두 변인 중 자신의 성역 할정체감($\beta=.349$)이 어머니의 음양의복행동($\beta=.292$)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확대가족의 경우에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決定係數 R²는 .228로 Model II에서 딸의 陰陽衣服行動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에 의해 23%가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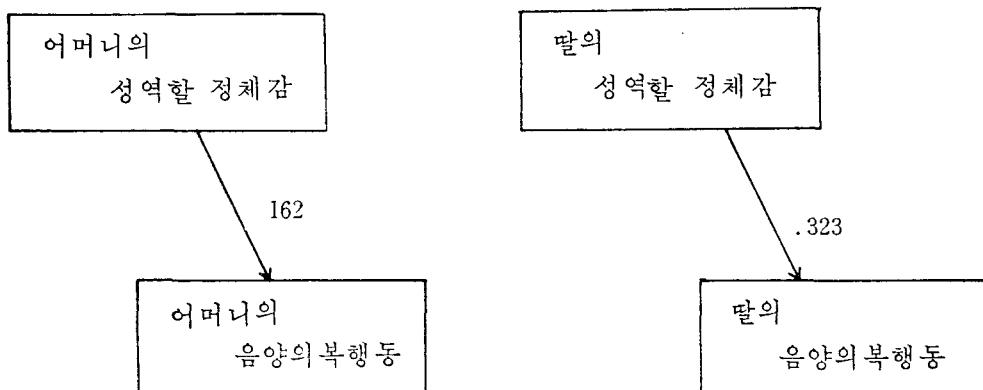
그림 3은 핵가족의 경우를 2단계 重回歸分析한 결과이다. 핵가족에서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이었으며,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딸의 性役割 定體感이었다. 어머니의 성역 할정체감과 음양의복행동과의 관계($r=.162$)보다는 딸의 성역 할정체감과 음양의복행동과의 관계($r=.323$)가 더 높은 相



〈그림 1〉 Model I : 일반모형



<그림 2> Model II : 확대가족인 경우



<그림 3> Model III : 핵가족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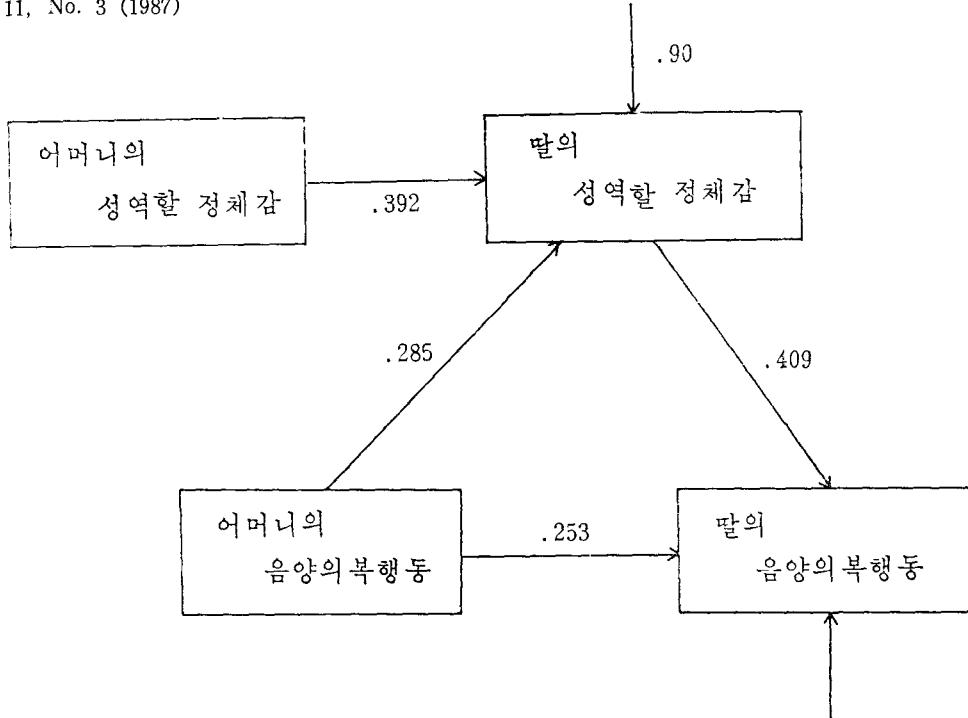
關係를 보였다. 그러므로 핵가족의 경우에 어머니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의 복행동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의 복행동에直接的으로나間接의으로 유의한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가정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통제한 모형 (Model IV, Model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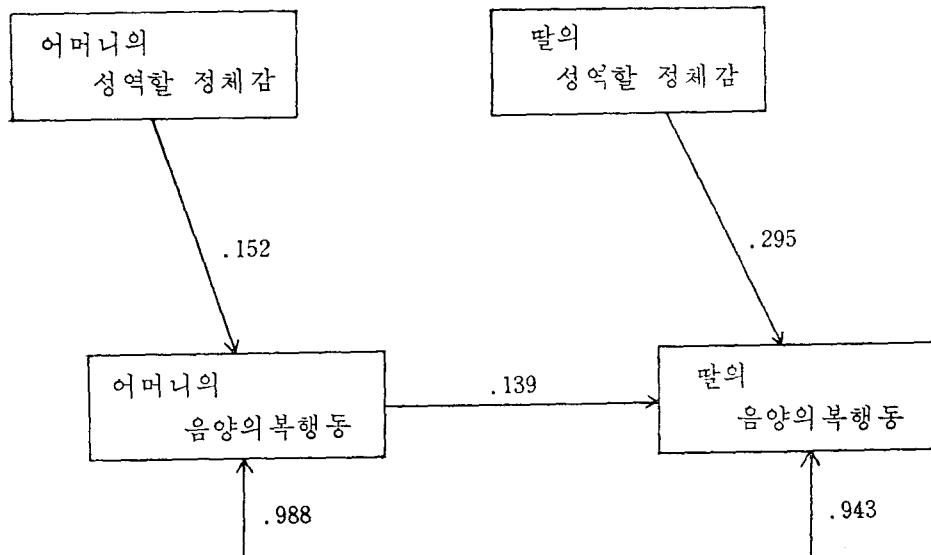
가정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라서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差異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職業有無를 統制하여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를 검증하였다. Model IV는 어머니가 職業이 있는 경우이고, Model V는 어머니가 職業이 없는 경우이다.

그림 4는 어머니가 職業이 있는 경우를 2단계 重回歸分析한 결과이다. 이 모형에서 딸의 陰陽衣服行動에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변인은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과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이었다. 또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딸의 性役割 定體感을 媒介로 하여 (.285 × .409 = .116) 딸의 陰陽衣服行動에間接의으로도 影響



<그림 4> Model IV :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림 5> Model V :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을 주었다.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딸의 性役割 定體感을 媒介로 하여 ($.392 \times .409 = .160$) 딸의 阴陽衣服行動에 間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모든 變因 중에서 딸의 성역할 정체감 ($\beta = .409$)은 딸의 阴陽衣服行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決定係數 R^2 는 .274로서 어머니가 職業이 있는 경우에 딸의 음양의복행동은 어머니의 성역할 정체감, 어머니의 음양의복행동, 자신의 성역

할 정체감에 의해 27%가 解釋되고 있다. 그려므로 딸의 阴陽衣服行動은 어머니가 職業이 있는 경우에 說明力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는 어머니가 職業이 없는 경우를 2단계 重回歸分析한 결과이다. 어머니가 職業이 없는 경우에 딸의 阴陽衣服行動에 直接적인 影響을 미치는 原因은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 ($\beta = .295$)과 어머니의 阴陽衣服行

動($\beta=.139$)이었다.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을 媒介로 하여 ($.152 \times .139 = .021$)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間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어머니의 職業有無에 따라서 인과모형에 상당한 差異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變因은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를 紛明하는데 補足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綜合해보면 딸의 陰陽衣服行動은 다섯가지 모형 모두에서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에 直接的인 影響을 받았으며, 상대적 영향력도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Model Ⅲ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에서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었으며, Model Ⅳ에서는 間接的인 影響도 주었다.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間接的인 影響을 주었으나, 이는 統制狀況에 따라서 差異가 있었다.

IV. 結論 및 提言

本研究에서는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과의 關係를 紛明하고, 이와 함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에서 어머니와 딸간의 關係를 紛明하고자 하였다.

研究結果를 토대로 내린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家庭環境變因 중 家族形態와 어머니의 職業有無는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는 職業이 있는 경우에 職業이 없는 경우보다 衣服行動에서 陽의 (男性的인) 衣服特性이 높았으며, 女大生은 학가족의 자녀인 경우에 확대가족의 자녀보다 陽의 衣服特性이 높았다.

둘째, 어머니 집단에서는 性役割 定體感이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女大生 집단에서는 性役割 定體感이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男性性 유형의 女大生은 衣服行動에서 陽의 衣服特性이 높았고, 女性性 유형의 女大生들은 陰의 衣服特性이 높았으며, 兩性性 유형과 未分化 유형의 女大生들은 男性性 유형과 女性性 유형의 中間의 衣服特性을 나타내었다.

셋째,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全般的인 關係를 보면,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과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이었으며, 이 중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관계는 家庭環境

變因을 統制하였을 때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가장 환경변인 중 음양의 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家族形態와 어머니의 職業有無를 統制한 모든 狀況에서, 딸 자신의 性役割 定體感은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었으며 相對的 影響力도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陰陽衣服行動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直接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性役割 定體感은 딸의 陰陽衣服行動에 間接的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는 統制狀況에 따라서 差異가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未治하나마 어머니와 딸의 性役割 定體感과 陰陽衣服行動간의 關係를 紛明하였다. 女大生 집단에서는 性役割 定體感에 따라서 陰陽衣服行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衣服은 性役割 定體感을 反映하는 하나의 指標가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딸의 性役割 定體感 形成에 영향을 주는 역할모형(role mode)이 되며, 衣服行動에서도 하나의 標本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衣服行動은 더욱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青年期 딸의 올바른 衣服價值觀 確立과 衣生活의 方向提示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衣服價值觀 確立과 慎重한 衣服選擇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陰陽衣服行動變因이 衣服行動의 다른 측면인 流行, 디자인 선호등과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비교연구하고, 陰陽衣服行動을 說明·豫測할 수 있는 다른 人口統計學의 變因과 心理的 變因에 대한 質的 차원에서의 연구와 함께, 研究對象의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地域別, 年齡別 비교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를 變因들의相互關係를 고려한 綜合的인 研究가 이뤄져서, 性役割과 衣服行動과의 關係가 더욱 확실하게 紛明되기를 期待한다.

參 考 文 獻

- 1) Horn, M.J. and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12, (1981)
- 2) Kefgen, M. and Specht, P.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0-12, (1976)
- 3) Smith, M.D. and George, D. Self,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ex Role Attitu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02-11, (1980)
- 4) Block, J.H.,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26, (1973)
- 5) Broverman, I.K., Broverman, D.M., Clarkson, F.E., Rosenkrantz, D.S. and Vogel, S.R., Sex 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e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No. 1, 1-7, (1970)
- 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회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7)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No. 2, 155-62, (1974)
- 8) McJimsey, H.T., Art in Clothing Selection, N.Y.: Harper & Row, 64-115(1963)
- 9) Wunderlich, L.R., Preference for Specific Lines in Clothing and Home Furnishings and Association between Line Preference and Certain personality Tra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 State Univ., (1961)
- 10)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11) Kahng, H.,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Univ., (1971)
- 12) 정삼호, 부산시 여대생의 의복관심과 패션디자인 선호도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No. 1, 43-51, (1984)
- 13) 정삼호, 진(Jean)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14) 최경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15)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 No. 3, 1-11, (1979)
- 16) 김희강, 새로운 성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17) 원미숙, 강혜원,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 No. 2, 37-44, (1983)
- 18)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1971)
- 19) Roach, M.E. and Eicher, J.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and Sons, (1965)